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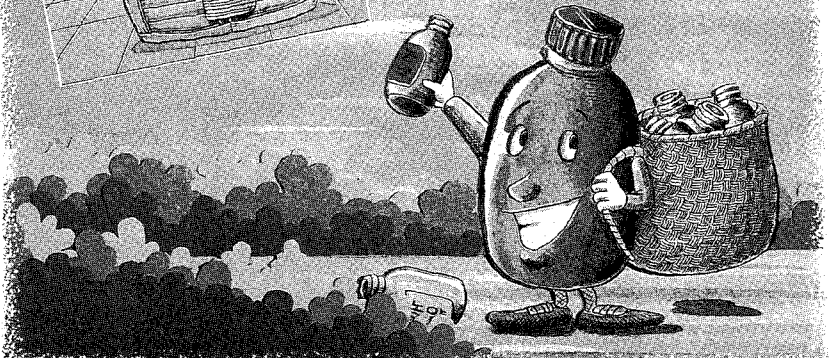
#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쓰고 남은 농약의 보관과 빈병처리

쓰고 남은 농약은 안전하게 보관하셨습니까? 농약빈병은 버리지 않고 모두 모으셨습니까? 제대로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챙겨봅시다. 결코 소홀히 넘겨서는 안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홍보부>



## 빈병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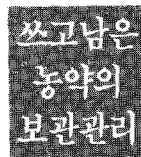
**과거의** 농작물 재배기간은 봄부터 가을까지 주로 따뜻한 계절로 한정되어 있어서 겨울에는 마늘, 고추, 김장김치등 저장식품을 먹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상추, 오이, 토마토, 딸기등 신선한 농산물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같이 우리가 풍성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수리시설의 확충, 영농의 기계화, 다수확 품종의 육성보급, 시비법 개선 등의 힘도 컸겠으나 무엇보다도 농약을 사용한 병해충 및 잡초의 효율적 방제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늘리고 병해충이 발생하기 쉬운 시설재배도 연중 가능하게 했으며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농약은 농작물 재배기간의 조절 및 다수확을 위한 다비재배를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제조제는 제조작업으로 부터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줄여 주었고 직파재배와 같은 새로운 농업기술의 도입도 가능하게 하였다. 농작물을 가해하는 병해충 및 잡초의 종류는 병 1,295종 해충 2,571종 잡초 444종 등 모두 4,310 여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오늘날 농약이 개발보급되지 않아 농업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때 그 결과는 어떠할까? 틀림없이 각종 병해충과 잡초가 늘어나 농작물의 수확량은 급격히 감소되어 극심한 농산물 부족사태를 초래할 것이며 부족한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막대한 외화를 소비해야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은 또다시 뜨거운 땀별 아래서 잡초를 뽑아야하는등 힘든 노동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농촌의 일손부족은 더욱 가중될 것이 틀림없다.

이렇듯 농약은 농업생산에 필수적이지만 사용후의 2차적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쓰고남은 농약의 보관관리와 빈병의 처리문제이다.



올바른 사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농약의 적절한 보관이다.

농약의 경우중독 즉, 농약을 마심으로써 일어나는 중독사고 원인의 대부분이 잘못 보관된 농약을 술에 취한 사람이, 또는 어린이가 음료수 등으로 잘못 알고 마시거나 사살 목적으로 이용하여 일어난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1982~1986 5년간 농약중독

사고의 원인분석 결과를 보면 12개 원인항목중 「보관불량으로 노인, 유아가 잘못 먹거나 만취에 의한 오음, 농약사용 후의 관리불량」이 전체의 21.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약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손댈 수 없도록 보관해야 한다. 농약을 판매하는 사람은 '농약관리법'에 규정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일반농가에서는 다음 사항들에 유의하여 보관·관리해야 한다.

① 반드시 잠금장치를 한다.

농약은 전용 보관 상자를 만들거나 현캐비닛 등에 자물쇠 장치를 하여 어린이나 노인, 술에 취한 사람이 농약을 함부로 취급할 수

라벨이 훼손되었으면 상표명 등을 적어붙이고 제조제는 일반농약과 구분지어, 현 캐비닛 등을 이용, 반드시 자물쇠를 채워 보관한다.



없도록 해야한다.

②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농약의 보관장소는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이어야 한다. 농약은 직사광선을 쬐이면 용매가 휘발하거나 분해될 위험이 있다. 화기의 접근을 막아야 함은 물론, 특히 분제나 수화제 같은 농약은 습기를 피해야 한다.

③ 절대로 용기를 바꿔서는 안된다.

농약은 담겨진 본래의 농약용기에 그대로 보관해야지 사이다 콜라 또는 박카스등 음료수병이나 약병에 넣어두면 어린이나 술에 취한 사람이 잘못 알고 마시는 위험천만한 경우를 당하기 쉽다.

만약 농약용기에 붙은 라벨이 훼손되었다면 최소한 농약명, 상표명(또는 품목명)이라도 표시해서 보관해야 다음에 사용할 때 오용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④ 제조제는 구분해서 보관한다.

제조제(특히 비선택성 제조제)와 고독성 농약은 일반농약과 구분하여 보관해야 잘못된 혼용으로 인한 약해등 오용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⑤ 이상유무를 수시 점검한다.

보관중인 농약은 용기의 부식, 약액의 누출, 마개의 풀림 등이

없는지 가끔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용기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견고한 다른 용기에 옮겨담고 본래의 라벨을 붙이도록 한다.

⑥ 약효보증기간을 잘 살펴본다.

농약용기의 라벨에 표시된 약효보증기간은 제조회사가 품질을 보증하는 기간이다. 따라서 같은 농약이 여러개 보관되어 있다면 약효보증기간이 가장 가까운 것부터 먼저 사용토록 한다.

이 밖에도 농약포장용기의 라벨에는 농약의 보관에 필요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항상 라벨을 잘 읽고 표시에 따라 보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농약 빈병의 처리

농약을 사용하고 난 뒤 빈 농약병을 논·밭두렁이나 수로 등에 버려서는 안된다. 병에 남아있는 농약으로 물이나 토양이 오염되고 깨진 농약병에 의해 농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인축에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농약빈병은 절대로 버리지 말고 모두 모아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한 노력은 꽤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농약빈병 수집제도의 변천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자.

빈병수집제도의 변천과정

1980년까지 실시됐던 유상수집제도는 농민이 직접 농약빈병을 모아 단위조합이나 군농협에 가지고 가서 현금을 받는 것이었다. 당시 500ml병 1개당 74년에는 9원이던 것이 81년에는 14원이었다. 그러나 7년간 지속돼왔던 이 제도는 농민이 직접 단위조합까지 운반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 때문에 실적이 부진했다.

1981년부터는 농약회사별 지역담당체제에 의한 무상수집제로 전환되었다. 당시 11개 농약제조회사가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누어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통해 1987년부터 실시해 온 유상수집제도가 현재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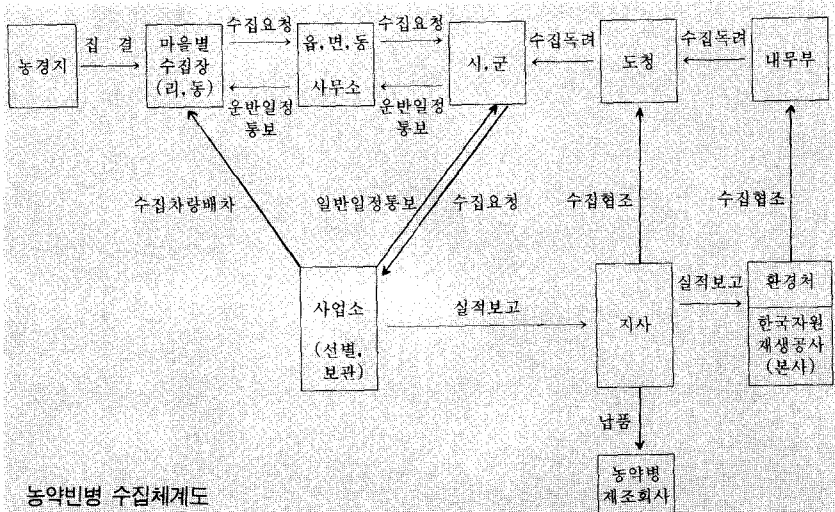
회수책임을 맡은 것이었다. 즉, 농가가 마을 수집장에 모아놓으면 농협차량이 이를 회수하고 제조업체가 운송, 폐기하는 체계였다. 이를 위해 농약업계에서는 빈병의 보관과 운반을 위한 마대공급, 빈병수집장 설치 유도, 회수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회수실적이 꾸준히 향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농민의 인식부족과 무상수집, 수집체계의 미미 등으로 농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최초단계의 수집이 부진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1987년부터 정부차원의 관

심 속에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통한 유상수집제도가 채택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자원재생공사에서 유상수집

전국적인 수집망과 인력·장비를 갖추고 방방곡곡을 돌면서 주로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수거해오던 재생공사가 농약빈병을 병행하여 수집하게 된 것이다. 즉, 수집업무는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주관하고 수집비용은 국고, 자치단체, 농약업계가 각각 30%씩, 그리고 농협이 10%를 해마다 부담하는 체제이다. 현재의 수집제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수집절차는 재생공사에서 내무부, 농림수산부, 환경처의 협조아래 각 시·도, 시·군 및 읍·면별로 연간 수집목표량을 정해놓고 마을단위로 짜여진 일정에 따라 순회 수거한다.

수집가격은 금년까지는 병 1개당 30원씩 즉, 유리병은 kg(300ml 병 3개 상당)당 90원, PET병은 kg(500ml 병 3개 상당)당 900원이었으나 농촌주민들의 수집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1993)부터는 병당 40원, kg당 120원으로 높일 계획으로 있다.

### 내년부터 병당 40원으로 인상

특히 한국자원재생공사는 매년 봄, 가을에 집중수거캠페인 기간을 설정,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수집을 촉진하여 많은 성과를 올

려왔다. 자원재생공사는 매년 봄가을 집중수거 캠페인을 벌여오고 있다.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보호를 위해 수집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리고 있다. 그동안 재생공사는 87년 3,400만개, 88년 3,700만개, 89년 4,000만개, 90년 4,400만개, 91년에는 4,700만개를 수집하여 점차 수집량이 증가하고 있다.

수집된 농약빈병은 유리병 제조회사로 보내져 유리를 재생하는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농민 스스로의 자발적인 협조와 관심 속에 농약빈병이 전량 수집된다면 농촌의 환경보전은 물론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일석이조의 득이 된다.

올 가을에도 재생공사에서는 11월 한달동안 「가을철 재활용품 집중수거」를 실시한다. 깨어진 농약빈병도 물론 수거해간다. 농경지, 생활주변에 흩어져있는 폐비닐, 재활용품과 농약빈병을 모두 모아 버려진 폐자원을 재활용하고 토양과 수질오염을 막아 환경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자.

요즘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 분리수거」등이 강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부터 실천’ 하는 일이다. 조그만 불편을 감수하면 오래오래 훨씬 더 편리해질 수 있을 것이다. 쓰레기 문제, 환경문제는 ‘나’에게서 부터 비롯되고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